

건축자산으로서 철도건축의 가치와 특성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ailway Architecture as an Architectural Asset

강혁진*
Kang, Hyuk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railway architecture as an architectural asset. So, the study has reviewed the current and ongoing government policies and the situation and projects related to architectural asset in Korea and overseas cases were also briefly reviewed. Through this, Korea Railroad Architecture has the following asset values and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value and characteristics are: Firstly, in terms of being the main form of public architecture that led Korean modern architecture, it can be seen that the value of Korea Railroad Architecture is fundamentally present as an architectural asset. Secondly, if it is considered that other types of architectural asset are closely linked with the local identity, there is an independent architectural type characteristic of railroad architecture.

키워드 : 철도건축, 철도건축보존, 건축자산, 가치, 특성

Keywords : Railway Architecture, Preservation of Railway Architecture, Architectural Asset, Value,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건축계에서는 다양한 학술연구 및 조사 활동과 진흥구역설정 등 실질적 보전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도시재생 및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자산이라는 개념은 대상물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과거의 건축물이 현대적 의미로 상품적 가치를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그 대상이 현대적 가치가 공공적으로 혹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나 아이덴티티 확보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적극적 보존 혹은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 근대 공공건축의 주체였다고 볼 수 있는 조선총독부의 철도국은 철도시설을 포함한 관사, 주거, 공공청사 등을 관장해온 측면에서 건축자산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철도건축이 건축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대표적 근대건축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철도건축의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철도역사의 건축자산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근대 한국 철도건축의 건축자산적 가치를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파악하고, 최근 정부 관련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산 관련 사업을 살펴보고, 해외의 건축자산 관리사례 파악을 통하여 철도건축의 자산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부의 건축자산 관련 정책

2.1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주관으로 2020년도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작성된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자산이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 한국교통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건축학석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hkang@ut.ac.kr)

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전·활용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보호가 보전에 중점을 둔다면 건축자산은 활용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이며,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 중 문화재 혹은 등록문화재 등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0)에서는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과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는 단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여기에는 건축자산의 발굴과 왜 그 건축물이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청 등의 관련 사업들과 함께 연차별,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부 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건축자산이 위치하는 곳은 구도심이나 소도시의 경우 철도역 중심 공간인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철도건축의 자산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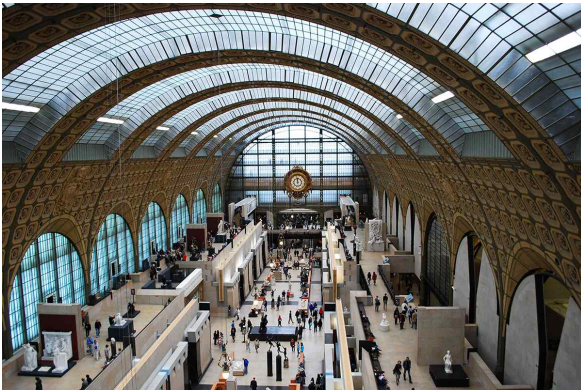


Figure 1. Reuse of former Railway Station for the Art Museum

2.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및 지역문화정책과에서는 지역 유희공간의 문화공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의 관련 내용을 보면,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하고 있는데 공공문화·체육시설 확충 과정에 지역의 유희공간(옛 행정부지, 폐산업부지 등)의 문화공간화(책문화센터 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사례로 옛 충남·경북도청을 지역 맞춤형 특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문화 발전을 견인한 사례도 있다. 또한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화도시 및 관광거점 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의 체계적 지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광거점

도시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육성을 본격적으로 하여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권역과급효과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각 도시는 전통문화, 건축, 원도심 근대문화 등을 콘텐츠가 가지고 있다.

2.3 문화재청: 역사문화권 정비 등

건축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화재청은 다양한 문화재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국, 정책국, 활용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해 지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회 심사 중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근현대문화유산개념의 구체화와 등록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정책과 법률적 차원으로 문화자산의 발굴, 보전, 활용을 명문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현대문화유산은 위생보건, 항일독립, 미군기지 등 다양한 유산유형을 본격적으로 발굴·조사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조사의 체계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인 문화유산 데이터 맵은 지정문화재 데이터 표준화, 비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DB 구축 및 학술연구 지식정보 추적을 위한 것이며 문화유산채널, 문화재연구소 등 국가문화유산포털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디지털화된 문화유산 데이터는 문화유산 콘텐츠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문화유산을 보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활용의 측면, 고용창출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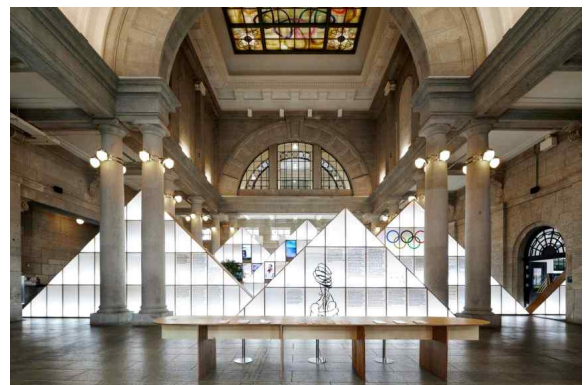


Figure 2. Reuse of former Seoul Station for cultural art space (Seoul Culture Station 284)

3. 국내외 철도건축의 자산 활용 현황

3.1 한국 철도건축 자산 활용

철도시설의 자산 관리는 철도기관의 주요 업무 내용이다. 인프라 및 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상 시설 자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속철도의 등장 등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노선과 시설을 요구하며

기존 시설이 유희화되는 때도 있으며 증설되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철도의 자산 관리는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에서 자산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에서 국가시설공단과 분리 독립된 이후 운송사업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개발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역사(민자·복합), 역세권, 철도연변부지 등을 개발하고 자산 임대를 해오고 있다. 철도공사의 개발사업의 범위는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뜻한다.

현재 자산개발은 시설자산의 정량적 활용에 치중되어 있어 보유한 시설자산 중 건축자산을 구분해내거나 그 가치를 이용한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구서울역이나 다수의 간이역이 국가등록문화재 지정되었으며 지역활성화,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재생의 흐름과 함께 다수의 구 역사나 역세권을 지역활성화 권역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사회적, 경제적, 경관적 차원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산개발 대상의 확장을 의미한다.



Figure 3. former Gunsan Yimpee Station reusing for the part of the theme park

3.2 해외 철도건축 자산 활용 사례- 미국 암트랙 역사 유산 등록프로그램을 통한 철도역 보존과 진흥

미국 내 약 500여 철도역사를 관리하는 암트랙의 역사 유산 등록프로그램을 통한 철도역의 보존과 진흥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 The Great American Stations에서 작성한 “Protecting and Promoting Rail Stations Through Historic Designation Programs”에서는 등록은 단지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역사자산인 철도역을 재활용하거나 재생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역사유산 등록의 3단계 레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소개하며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역사자산 등록을 통한 보존 지정은 지방 자치 단체가 기차역과 같은 중요한 지역 랜드마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도구로 파악하고 있으며, 솔즈베리와 전국의 수많은 도시의 사례에서처럼,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요소가 함께 작동하여 현재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역사적

구조의 재사용은 공동체가 역사적 자산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다. 즉, 새로운 목적과 적절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역 사회의 현재와 예상되는 요구 때문에 건축자산으로서의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시민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있는 역할로 철도역은 재생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역사보존과 진흥이 역사자산등록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Figure 4. Station Restoration Case in the United States

3.3 철도건축의 건축자산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

철도역, 특히 근대 시기 건설된 철도역사는 일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건축적 가치를 조명받지 못하고 멸실되는 상황이다. 근대 이후 현대 시기에도 건축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가치평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보존보다는 철거 후 신축하거나 방치 또는 매각 처분시키는 일도 있었다.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첫 번째 할 일은 전수조사하는 일이다. 철도역의 건축자산으로서 가치 즉, 역사적 혹은 이론적 측면에서 한국 철도건축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근현대 건축물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선으로 현재 건축물을 조사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록의 방법도 다양하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의한 조사의 내용은 건축물의 외관에 치중하는 방식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3차원 스캔 등 다양한 방법의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한국적 상황과 건축적 가치평가를 위한 이론적 연구를 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건축자산 조사 및 연구는 건축도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자산의 개념, 진흥구역의 설정, 커뮤니티와 연계방안,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방안 등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철도건축은 건축기능의 유형에서 건축자산으로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이상을 통하여 건축자산과 관련된 현재 진행되고 정부 정책과 추진사업을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았으며, 한국적

상황과 해외 사례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사례들은 지역여건, 건물유형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반적인 정책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철도건축은 다음과 같은 자산적 가치와 특성이 있다.

첫째, 한국철도건축은 근대건축을 주도하던 공공건축의 주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타 건축자산이 지역의 정체성과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철도건축이라는 독립적 건축 유형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철도건축의 가치와 특성은 지역적 차원으로 개별적으로 파악되기보다 한국의 철도건축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별적 차원보다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철도건축 전반을 조사하고 특성을 정립하며 그 건축자산적 활용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Ministry of Land(2015),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st Basic Plan for Building Asset Promotion
2. Ministry of Land(2020),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nd Basic Plan for Building Asset Promotion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20),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and Legisla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in business plan for year 2021
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ports and Tourism, main business plan for year 2021
6. Korea National Assembly(2021), Original text of the bill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7. The Great American Stations(2013), Protecting and Promoting Rail Stations Through Historic Designation Programs